

나의 설교론

김 기 태
(고려 신학대학원 2년)

— 들어가면서 —

아직 강도권이 없는 목사후보생으로서 ‘나의 설교론’을 말한다는 것은 분명 성급한 처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시기상조라는 의미이다. 머리카락을 희끗희끗 휘날리며 그것도 거의 삼, 사십년이 넘도록 강단에 서신 목사님들조차도 설교에 대해서 만큼은 조심스러워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데 신출내기인 필자의 심정은 어떠하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탁앞에서 무기력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편집부의 의견을 존중한 까닭이고, 다른 하나는 평소 긍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소신(?)때문이라 하겠다.

나름대로 글의 줄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세운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학교와 교회에서 배운 설교에 대한 제이론과 실재를 최대한 수렴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깊이나 감동 — 물론 아무도 기대하지 않겠지만 — 보다는 배우는 학도로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배운 바를 정리하고 종합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 2년전 학우회 주최로 열린 부흥회 및 학술대회 때에 오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중에 아직 내 귀에 메아리치며 감동시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말씀 즉 ‘교회는 좋은 설교자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이다. 이 말은 비단 그 목사님 뿐만 아니라 오늘 목회 일선에서 일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바램이리라 믿는다. 이렇듯 신학교육을 받는 목사후보생과 설교는 뿔뿔해야 뿔 수 없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이제 본인은 설교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더불어 몇 가지 설교의 원리적 측면을 다루고 이어서 설교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의 설교론’을 미약하게나마 밝히고자 한다. 설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논(論)하지 못하는 것이 끝내 아쉽기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설교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다루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리라는 생각에 설교의 원리와 설교자에만 국한시키고자 한다.

1. 일반적인 고찰

21세기를 내다보는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 도시화, 산업화, 비인간화 그리고 세속화 등 교회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있긴 해도 거기에만 원인을 다 돌리는 것은 우스운 것이요, 어리석은 판단이다. 물론 이런 제 환경적 요인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은 모두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이 주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위기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서 진찰을 하는 것과 같이 병든 교회를 고칠 수 있는 길은 바른진단에서 출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국 비유장인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가 들어 있다. 그 중에 3번째와 4번째 비유인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복음이 전파되면 천국(하나님의 나라)은 확장되어간다는 것이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외적으로도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즉 복음적 교회는 질적성장과 동시에 양적성장이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더 심히 많아지고……”(행 6:7참조, 행 2:41, 4:4). 이는 말씀이 전파되는 것과 교회성장이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상의 말씀에서 간추려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일차적으로 교회와 복음(말씀)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이제까지 한국교회의 성장 원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진단해 볼 수 있는데, 사실 한국교회의 성장은 세계교회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기까지 하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건질 수 있다는 말과 서로 통한다고 하겠다. 한국교회가 초창기로부터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말씀전파’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온전한 말씀전파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질적성장과 양적성장이 균형있게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위기에 빠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란 올바른 말씀전파 밖에 없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변인이요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권위를 지니게 된 목사의 설교는 교회의 흥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교의 원리와 설교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2. 설교의 원리

설교에 있어서 유일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을 사랑하고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설교자는 성경을 등질 수가 없다. 설교자의 생명은 성경을 의지하는데 달려 있다. 설교는 설교자의 주관적 생각이나 명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 즉 설교자는 말씀의 봉사자이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감없이 청중을 향해 선포해야 한다. 여기에 설교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J. I. 패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들을 부르시는 분명한 비전을 말하면서 몇 가지 주안점들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간단하게나마 설교의 원리를 제공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은 계시이다. 성경은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과 섭리 및 구속사전에 있어서 그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의 모든 자기 계시는 찬양 받으시기에 무한히 합당하므로 우리는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다.

셋째, 인간은 잃어버린 양이다. 인간이 처해 있는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 없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 받은 인간은 영적으로 장님과 귀머거리가 되었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버렸다.

네째,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히 13:8)

다섯째, 설교는 설득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성적인 존재로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진리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순종하도록 설득하신다.

여섯째,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마귀는 사악하기 그지 없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활동한다.

일곱째, 하나님의 성령은 주권자이시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

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손길을 통하여 무적함대가 된다.¹⁾

이제 설교의 원리적 측면을 설교의 목적, 본질, 대상, 주체 그리고 내용 순으로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한다.

2.1. 설교의 목적

설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신자 개개인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신자 개개인을 세워 나가는 동시에 전(全)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다. D.M. 로이드 존스는 이를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존전에 있다는 생각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²⁾ 이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 생활의 전 영역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지 결코 설교자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설교를 통해서 불신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이로 인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 등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설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고전 10:31, 롬 11:36)에 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 즉 강단의 위기는 가장 먼저 설교의 목적 상실에서 찾아야 하리라 생각된다.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 보다는 듣는 청중들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방황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미사여구를 사용하기 좋아하고 때로는 경건성이 결여된 말로 청중을 웃기며 그들이 즐거워하면 오늘 설교는 성공적이었다라고 판단해 버리는데 이것은 착각이요, 잘못이다.

참된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거기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 나오는 회개와 믿음과 기쁨이 있다(행 2:37~38, 히 4:12).

2.2. 설교의 본질

인간 타락이후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도전적이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융화시키려고 할 뿐 아니라 곤경에 빠지게 하여 마침내 죄에 굴복하도록 유도한다(참조; 마 24:24). 베드로는 생생하게 묘사하기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라고 말한다. 이는 신자들을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마귀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악마요 행동영역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오랜세월을 살아오는 늙은 존재임에 틀림없으나 강한 자임에도 틀림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지칠 줄 모르는 존재다. 신자나 교회는 이런 존재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설교자는 신자나 교회가 세상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말은 설교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의미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동시에 적용시켜야 함을 말한다. 이것이 설교의 본질이다.

그 간단한 예를 누가복음 4:16~22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61:1~2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21)라고 하심으로 해석과 적용을 동시에 하고 계신다. 이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그의 서신에서 전반부는 교리를 말하고 후반부는 적용을 다룬다.

O. M. F의 선교지 총책임자인 데니스 레인은 '설교자는 세 가지 다른 세계를 취급하는데,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세계와 듣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와 설교자 자기 자신의 세계를 계속 관찰해야 한다'고 말한다.³⁾ 이것 또한 설교에 있어서 해석과 적용은 동시에 강조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과 동시에 현재의 청중에게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적용하는데 있다.

2.3. 설교의 대상

설교의 대상은 설교자가 있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이 부분은 전(前) 항목에서 다룬 설교의 본질-해석과 적용에 동시에 나타남-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그들을 잘 살펴보아야만 한다. 그 청중들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혹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에만 너무 관심을 둔 나머지, 청중들의 생각과 마음 따위는 하잘것 없는 것인양 애써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데 이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끌어 온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부지런히 자기가 섬기는 회중과 접촉함으로써 그들의 필요와 관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설교자가 회중의 취향에 맞는 본문을 선정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늘어 놓는식의 의미와는 분명히 다르다.

또한 설교자는 청중의 다양성(년령별, 성별, 직업별 등)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듣는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한국인'임을 간파해 버린다면, 그 설교는 결코 청중들의 마음에와 닿게할 수 없으며, 가슴을 울릴 수 없다. 설교자는 한국적 상황을 잘 고려하는 지혜와 더불어 설교의 대상이 우연히 모이는 무리가 아니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신자들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

· 각 주 ·

- 1) Samuel T. Logan, Preaching(Evangelical Press), <설교는 왜 하는가?> (말씀의 집 역간), PP. 54~60.
- 2) D.M.Lloyd Jones, Preaching & Preachers, <목사와 설교> (기독교문서선교회 역간, 1977) P.107.
- 3) Denis J. V. Lane, Prech The Word, O. M. F. Publishers<강해설교> (성서유니온 역간, 1982) P. 34.